

제10회 한·일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 화보



▲ 본회의를 통해 수계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

▲ 회의장에서 배평암 회장과 다나카 준치 회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.



▲ 회의를 마친 후 기념사진 촬영



▲ 통영 만찬장에서 기념 촬영(우측에서부터 이영호 국회의원, 김명주 국회의원, 다나카 준치 회장, 진의장 통영시장, 배평암 회장)



▲ 양국 대표단은 수산업 중심도시인 통영의 수산업 시설을 둘러보았다.



▲ 양국 대표단이 경남 통영 바다목장을 시찰하고 있다.